

[복지부] '인간복제 금지법' 제정 서둘러

우려했던 인간복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법 제정 이전이라도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과학기술계와 종교계 등의 이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이 난항을 겪었으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간복제는 물론 그 전단계인 인간 체세포 핵 이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 입법할 계획이었으나 '난치병 치료 목적의 체세포 핵 이식 허용'을 요구하는 과학기술부 등과의 의견 절충 실패로 입법이 무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 채취, 복제 배아의 자궁착상, 태아 유전자 검사와 출산 등과 같은 의료행위가 개입되므로 비 의료인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료인이 개입된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2002.12. 29)

[국내신약 5호] 팩티브정 시판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LG 생명과학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

발한 신약 항생제 '팩티브정'의 시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팩티브정을 국내외 5,422명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만성호흡기질환, 폐렴, 축농증 등에 대해 90% 정도의 유효율을 보여 27일자로 시판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시판 허가를 받은 것은 99년 SK제약의 항암제 선프라, 대웅제약의 이지 에프외용액(2001년), 동화약품의 밀리칸(2001년), 중외제약의 큐록신정(2001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조선일보. 2002.12. 26)

공격적 성격, 심장병 악화시켜

심장병이 있는 폐경여성이 공격적 성격이면 온화한 성격의 환자보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여성건강임상연구소의 릴리 채퍼트 박사는 의학전문지 '역학 저널' 최신호 인터넷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폐경기가 지난 심장병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성격조사를 실시하고 4년간 지켜 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채퍼트 박사는 이들이 대부분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플라크가 동맥내에 축적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면 체내 반응을 유발,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 혈액의 흐름을 막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채퍼트 박사는 냉소적 태도, 공격적 행동, 분노, 불안 등을 포괄하는 적대적 성격이 흡연, 고

혈압, 고지혈증 등 일반적인 심혈관 위험요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이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채퍼트 박사는 앞서 심장병이 없는 나이 든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분노와 적대감이 심장마비나 기타 급성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자신의 연구결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성격을 지닌 심장병 환자는 운동이나 태도 교정을 통해 스트레스와 적대감을 통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공격적 성격이 심장병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채퍼트 박사는 말했다. (조선일보. 2002.12. 26)

임신 초기 3개월이 자녀 평생건강 좌우

[홍해걸의 의학 프리즘] 자궁환경이 중요

자녀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노력은 지대하다. 요즘 산모에게 유행하고 있는 제대혈(탯줄 혈액)보관 서비스가 대표적 사례다. 자녀가 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6백40분의 1 정도지만 1백만원이 넘는 돈을 선뜻 내놓는다. 절마다 보약을 사 먹이기도 하고 운동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의학적으로 자녀의 건강에 중요한 것은 자궁 속에 있을 때 잘해주는 것. 수정 직후 형성된 수정란이 자궁 속에 착상되면 9개월 동안 머무른다.

이 기간이야말로 아기의 평생 건강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

다. 특히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임신 초기(대개 3개월 이내)가 가장 중요하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난치병의 씨앗도 이때 뿌려진다.

최근 발표된 홍콩·중국의 연구 결과를 보자. 1만여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 중 한 달 이상 휴가를 받지 못한 직장여성아 낳은 아기는 신생아 표준치보다 체중이 평균 15g 적고, 신장은 0.6mm 작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영향도 있다. 아버지가 실직한 상태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아기에 비해 체중과 신장이 표준치에 각각 19g, 1mm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은 태반을 그대로 통과한다. 산모에겐 맥박이 조금 뛰는 정도지만 체중이 적은 태아에겐 심장이 터질 듯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궁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과 영양 결핍, 담배와 술 등 나쁜 환경이 조성되면 아기는 부실해진다. 아무리 유전자(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좋고 태어난 후 영양공급이 잘돼도 자궁 내 환경이 나쁘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은 항상 아기를 가졌는지 신경을 써야한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신체검사서에서 방사선을 쬐이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임신 여부를 잘 모르는 임신 초기 3개월이다. 이 시기 부모의 정서적 안

정과 고른 영양섭취, 적절한 운동과 휴식이야말로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중앙일보, 2002.12. 24)

비만을 치료하기 전에

비만의 치료방법에는 세계적으로 2만가지가 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특별한 비만치료방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비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만을 단지 살 빼기, 체중 줄이기 정도로만 평가하고, 신문이나 방송광고에는 체중이 몇 kg 줄었는지, 몸이 훨씬 날씬해 졌다는 등으로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품은 실제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만한 자(비만이 아닌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강박적인 사람도 있지만)들은 단시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 계속되는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체중의 변화가 심한 체질로 바꾸어 놓는다.

그것은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인체에는 체중을 항상 유지하기 위한 조절기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체중이 배탈, 설사 등으로 감소하면 병이 치료된 후 식욕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켜 체중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조절기전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다이어트식품 등으로 이전보다 열량을 급격히 줄

여 섭취하면 체내에서는 이러한 조절기전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던가 오히려 체중이 이전보다 증가시키는 현상을 낳게 된다. 실 예로 이전 잘살지 못하여 굶주렸던 흑인들이 현재 백인들보다 훨씬 비만이 많다는 것이다.

Poivy와 Herman의 경계모델 이론에 의하면 반복되는 단식이나 절식 이후에는 조절되는 체중의 범위가 넓어져 체중의 변화를 심하게 하며, 나중에는 소량의 음식섭취에도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 체중의 증감이 심하게 반복되어 항상 단식과 절식을 해야만 하는 상태로 만든다고 한다.

◇ 비만치료의 목적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위한 것이다.

비만치료는 첫째, 비만으로 발생하는 대사이상, 즉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요산증과 같은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에 있다. 즉,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하여 비만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비만으로 인한 심리적 열등감이나 우울증을 치료한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식증이나 신경성 거식증 등의 섭식 장애도 반드시 치료되어야 한다.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신의 왜곡된 인식으로 무분별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더욱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건강에는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2002.12. 18)